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5차시 : 의열투쟁 의열단, 한민애국단	학번	
	임종일 T		이름	

★의열단

일제 요인과 친일파 처단, 식민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적으로 결성

-1919.11월, (①),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결성

-비밀조직 / (②)적인 경향을 보임.

-(③)의 (④)을 활동지침으로 삼아

-일제 요인 처단과 식민 통치 기관파괴 등에 주력

#의열단원의 활동 (167p참고)

-1920, 박재혁 - (⑤)에 폭탄투척

-1921, 김익상 - (⑥)에 폭탄투척

-1923, 김상옥 - (⑦)에 폭탄투척

-1933, 남자현 - (⑧)암살 미수

-1926, 나석주 - 조선 식산은행과 (⑨)에 폭탄 투척

이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 의열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

→ 중국의 (⑩)에 입학하여 정규 군사훈련을 받음

& 1930년대, 독립운동지도자 양성을위해 중국 (⑪)의 지원을 받아

(⑫)를 설립

&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한 (⑬)설립 주도

(⑭)의 조선 혁명 선언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의 원인이 산같이 쌓여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찰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이제 폭력 - 암살, 파괴, 폭동 - 의 목적을 대략 열거하건대,

1.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偵探奴), 매국적(賣國賊)
4. 적의 일체 시설물

생각해보기

2016년 3.1절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훈,포상을 받은 독립 유공자는 1만 4,329명, 이 중 여성은 272명 (1.9%)에 지나지 않는다. 보훈처에서 발굴한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 규모(2747명)에 비하면 포상은 10%에 불과하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치마 속에 군자금을 숨겨 압록강을 건넌 정정화 선생처럼 당시 많은 여성이 태극기와 서류를 감춰 운반하고, 군수물자를 보자기에 싸서 운반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무장 투쟁을 우선시한 남성 중심의 기준에 의해 평가 절하될 수 밖에 없었다.

#의열단

4대목표


- 일제와 친일파 처단
- 조국 광복
- 계급 타파
- 평등한 토지 소유

5가지파괴대상

- 조선총독부
- 동양척식주식회사
- 매일신보사
- 각 경찰서
- 기타 중요 기관

7가지 암살대상

- 조선총독 및 고관
- 군부 수뇌
- 친일파 핵심인물
- 타이완 총독
- 매국행위를 한 사람
- 적의 밀정
- 반민족적 악덕 지방 유지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5차시 : 의열투쟁 의열단, 한민애국단	학번	
	임종일 T		이름	

★한민애국단

REVIEW) 대한민국임시정부, 위기

- 연통제,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 와해
- (⑮)) 결렬, 이승만 탄핵, 조직개편
- 만주사변 → 독립군 사기가 떨어짐
-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 감정 악화

so,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 1931, (⑯)) 조직.

한민애국단 단원 : '봉'

(⑰))의사

1932, 1월,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짐

실패. but, 일본에 큰 충격을 줌

일본은, 이 사건을 다룬 중국 신문의 내용을 빌미로

상하이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 (상하이 사변)

이봉창 선서

나는 적성(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민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

(⑱))의사

상하이 점령기념 + 일왕 생일 기념식 [1932.4.29.] 에 폭탄을 던짐

-많은 일본군 장성, 고관을 살상

결과 :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크게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줌

중국 국민당 장제스,

“중국100만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1명이 이루어냈다”

⇒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

but,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됨.

장건상의 증언

1932년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특히 윤 의사의 의거가 있기
전에는 장제스가 임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동전 한푼 안 도왔습니다.
윤 의사 의거를 보고서야 장제스가 전적으로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김학준, “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 -

윤봉길이 아들들에게 남긴 글(1932)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
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